

지역 소식통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부안군보건소(소장 이명자)는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가 전국에서 1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8~9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하며 급성발열과 오한, 복통 설사 등의 의심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만성간질환자, 당뇨병, 알콜중독자 등의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예방요령으로는 어패류는 85℃ 이상 가열해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고 어패류 조리 및 보관시 영하 5℃ 이하로 저온보관,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또 오패류를 요리한 칼과 도마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해야 하며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하면 좋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센터와 협약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배)는 부안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순신)와 지난 21일 부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양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체제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사회복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부안군자원봉사센터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부안시해로타리클럽(회장 김창운), 해당화로타리클럽(회장 송미선), 부안로타리클럽(회장 조찬홍), 변산로타리클럽(회장 양재일) 4개 단체와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배 센터장은 "최근 잦은 비로 인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는 기관과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표하며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협력체제로 지역사회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장애 건강 쉼터’ 문 열어

정읍시, 총 3억 3000만원 들여 한센인 공동시설 준공
식당·샤워실·휴게실 등 갖춰... 주민 화합의 장 기대

정읍시가 한센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지원으로 한센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평면 장애마을에 31명의 한센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치유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한센복지협회와 함께 한센 정착촌인 장애마을을 순회 방문해 한센환자의 정기 검진과 조기 치료로 감염과 장애를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기적 투약 치료와 재활 치료 서비스, 피해 위로금 지원, 양로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의료 및 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를 돕고 있다.

또한 정착촌의 지역적 낙후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한센인들을 위한 공동시설도 22일 준공을 완료하고 문을 열었다.

관련해 시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센 정착촌 공동시설 ‘장애 건강 쉼터’ 개소식을 가졌다.

‘장애 건강 쉼터’는 사업비 3억3천만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119.82㎡ 규모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이날 준공했다.

새롭게 신축된 공동시설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입식으로 앉아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과 쉼터 공간인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외부와 편견 때문에 어려웠던 목욕 또한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남녀 샤워실을 마련해 건강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로 전기요금 등의 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신축된 공간을 마을 주민들이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유진섭 시장은 “한센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한센 정착촌의 지역적 낙후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한센인들을 위한 공동시설을 22일 준공하고 문을 열었다.

정읍시 “수돗물 이상무... 안심하고 드세요”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 합동점검

“정읍 수돗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정읍시가 지역 내 상수도 정수장과 배수지 등 상수도시설을 점검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상수도위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정수장 1개소, 배수지 1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31개소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최근 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상수도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수돗물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산성정수장에서 광역 상수도를 전량 공급받고 있다. 산성정수장은 최근 문제가 된 유충 발생과 관련한 활성화 여과 방식이 아닌

미래 여과 방식을 통해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와 더불어 지방 상수도 배수지 11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31개소에 대해 위생 상태 등을 긴급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유기적인 체계 구축과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공모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0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안전·품질관리)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푸드플랜을 수립하거나 공공급식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대상이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종류별 검사 등 안전·품질관리를 지원해 지역 푸드플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난 6월 최종 완료된 부안군 푸드플랜 수립 연 구용역과 연계해 부안 로컬푸드 자체

인증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장경준 군 농업정책과장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푸드플랜 성공의 첫 번째 과제”라며 “확보된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원으로 로컬푸드 자체 인증체계 등을 갖춰 소비자 만족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성 강화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딴 곳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40세대에 대해 3개월간의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고창군 “군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고창군,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40세대 3개월간 특별관리

고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딴 곳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40세대에 대해 3개월간의 특별관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은 ▲고령으로 외부활동에 제한이 많은 어르신 ▲외딴곳에 거주해 도움이 손길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가정 ▲언어·청각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에서도 생계, 의료, 생활상담 등 통합관리가 절실한 가정이다.

특별관리는 3개월간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수어통역사와 의료급여 사제관리사(간호사)가 동행해 혈압과 발열 체크, 식중독 예방 등 여름철 건강관

리법, 일상생활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대상자에 맞는 핀셋 서비스를 연계한다.

1차 현장방문은 외부활동이 극히 제한돼 생활품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찾았다. 군은 후원자와 연계해 고창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밀반찬 4종과 과일·식료품, 텐탈 마스크 등 행복꾸러미를 전달하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민속도를 한층 높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리적·사회적 거리, 장애로 인한 소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현장행정을 통해 복지서비스로의 접근성을 한층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벼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용하세요”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이삭거름 적기·적량 주기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업인 홍보와 현장 지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일반벼의 경우 이삭패기 15~25일 전(어린 이삭 1~1.5mm)으로 주어야 한다. 특히 지역 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신통진은 도복방지와 미질 향상을 위해 출수 15일 전에 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올해는 기상 여건과 유수 형성 판단에 따른 이삭거름 주는 시기가 예년보다 2~3일 늦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용량은 10a당 N-K 복합 비료로 11~12kg을 주고, 요소비료와 염화加里 비료를 각각 줄 경우엔 요소 4~5kg과 염화加里 3~4kg을 기준으로 잘 혼합해서 준다.

또한 잎 색이 짙은 논과 도열병 발생 논, 기온이 낮거나 장마가 계속될

때는 질소사비랑을 20~30% 감량 또는 생략하고 대신 칼리비료를 20~30% 증시해 관리해야 한다.

이삭거름을 적기보다 빨리 주면 벼알이 너무 많이 생겨 벼알이 충실하지 못하고, 늦게 주면 이삭이 출수된 후 이삭도열병 등에 병해충 발생이 높아진다.

또한 이삭거름을 많이 주면 쓰러지기 쉽고 병 발생, 완전미율이 낮아져 품질이 저하된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잦은 비로 인해 도열병 등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므로 벼 출수 전·후를 통한 병해충 종합 방제로 병충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증점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